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

* 제 1 회 평북노회가 1912년 2월 15일 선천남교회에서 창립
* 제 73 회 평북노회가 1952년 3월 19일 부산평북노회당에서 재개
* 제 111 회 평북노회가 평북, 평동 합동노회로 1972년 1월 13일 동안교회에서

THE PYUNGBUK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문서번호 : 예장평북 제220-91호

시행일자 : 2026. 7. 22.(수)

수 신 : 지교회 담임목사

참 조 : 담당자

제 목 : 2026년 총회 이단경계주일(8월 2일) 성수 및 자료 활용 협조 요청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회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95회 총회에서 결의한 2026년 8월 2일(매년 8월 첫째 주일)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노회 산하 모든 교회에서 이를 뜻깊게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노회 산하 각 교회에서는 2026년 8월 2일(주일)을 이단경계주일로 성수하여 주시고, 설교와 교육, 기도 등을 통해 성도들이 이단·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 활용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제작한 「깨어서 분별하라!」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영상, 포스터, 목회서신: 총회 홈페이지(<https://www.pck.or.kr>)

각 교회에서는 예배 및 교육 시간에 영상을 활용하시고, 포스터를 게시하여 성도들에게 이단·사이비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6년 총회 이단경계주일 총회장 목회 서신 1부.

포스터 1부. 끝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

노 회 장 조 양 구 목사

서 기 김 창 근 목사



2026년 총회 이단경계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8월 2일은 우리 총회가 지키는 「이단경계주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이단·사이비 집단으로부터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바른 믿음 위에 서기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변화하는 이단의 일상적 포교와 위장 단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신천지 등 이단들은 SNS, 온라인 성경공부, 심리상담, 당근마켓 등 일상적인 커뮤니티와 관계망을 통해 접근합니다. 또한 ZION, HWPL, IPYG, IWPG 등 평화·문화 위장 단체로 정체를 숨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출처가 불분명한 성경공부나 모임 전에 반드시 목회자와 상담해 주시고, 총회가 제공하는 예방 영상 콘텐츠 <깨어서 분별하라!>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경과 바른 교리에 기초한 신앙 교육이 미혹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단은 성경의 비유를 왜곡하고, 육체 영생을 주장하며 특정 교주를 구원자로 내세워 복음을 가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죽음은 정해진 이치(히 9:27)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증거합니다(행 4:12).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도록 힘써 주십시오.

셋째, 이단 예방을 넘어 이단 탈퇴자들을 위한 회복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이단 내부의 균열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처럼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총회와 노회, 지교회가 협력하여 이들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교회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이단경계주일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오직 복음 위에 교회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8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훈 목사

깨어서 분별하라!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고 **지키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미래세대를 지키는 길!
신천지 OUT!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요일 4:1)



깨어있는
교회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 피해자는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